

과도한 이자장사 비판에...주주환원 당근책 꺼내

순이익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
예대마진 확대...고객 부담 가중
리딩금융 KB, 분기 배당 정례화
하나금융은 첫 자사주 소각나서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정우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5대 금융지주 2022년 1분기 실적				
	순이익	전년 대비 증가율	이자이익	전년 대비 증가율
KB금융	1조4531억 원	14.4%	2조6480억 원	18.6%
신한금융	1조4004억 원	17.5%	2조4876억 원	17.4%
하나금융	9022억 원	8.0%	2조203억 원	17.3%
우리금융	8842억 원	32.5%	1조9877억 원	22.7%
NH농협금융	5963억 원	-1.34%	2조1949억 원	6.3%

●금리 상승 속 이자이익의 증가가 원인

5대 금융지주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5조23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한 수치로, 5대 금융지주의 분기 순이익이 5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금융이 1조453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신한금융(1조4004억 원), 하나금융(9022억 원), 우리금융(8842억 원), NH농협금융(5963억 원) 순이다. 1. 2위 간 순이익 차이가 527억 원에 불과해 올해 리딩금융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해 1분기 대비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의 순이익이 각각 14.4%, 17.5%, 32.5% 늘어 분기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하나금융은 은행과 카드사의 특별퇴직에 따른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반면 NH농협금융은 코로나19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의 영향으로 1.34% 감소했다.

이 같은 순이익의 증가는 주력 계열사인 은행의 이자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부터 이어진 일명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바람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8월부터 네 차례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은행들이 받는 대출이자도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부진으로 유동성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려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이 더욱 확대됐다.

이 영향으로 각 금융그룹의 올 1분기 이자이익은 KB금융 2조6480억 원, 신

한금융 2조4876억 원, 하나금융 2조203억 원, 우리금융 1조9877억 원, NH농협금융 2조194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6%, 17.4%, 17.3%, 22.7%, 6.3% 증가한 수치다.

●은행 이자 장사, 고객 부담으로 작용

반면 증권사들은 대내외 투자환경 악화 영향에 증시 거래대금이 줄고,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으로 인한 기저효과(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수치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가 겹치면서 실적이 급감했다.

NH투자증권의 1분기 순이익이 10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나 감소한 것을 필두로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가 1분기 순이익 각각 1159억 원, 1045억 원,

119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9%, 37.8, 12.3% 감소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우리금융의 성장세가 유독 큰 것도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증권 계열사가 없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통한 실적잔치를 감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대출금리는 올리고 그만큼 예금금리는 올리지 않아 예대마진 이익을 확대한 것이 결국 고객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평균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는 지난해 12월 1.55%포인트에서 올 2월 1.86%포인트로 벌어지며, 2021년 5월(1.89%포인트)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지주들은 배당금 증가 및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정례화하기로 한 KB금융은 올해 1분기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500원으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1분기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400원으로 정했다. 2분기와 3분기에도 동일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감소해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하나금융의 자사주 소각은 2005년 지주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미래에셋증권, 산책하며 쓰레기 줍는 ‘플로깅’ 팔 건었다

임직원·가족 참여 친환경 캠페인
기부금 적립, 산불 피해지역 지원

미래에셋증권이 5월13일까지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ESG 환경캠페인 ‘m. 플로깅’을 진행한다.

플로깅은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cka Upp, 이삭을 줍다)’과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다. 산책을 즐기면서 쓰레기를 주워 생황 속 친환경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환경보호는 물론, 임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기획했다. 서울 청계천, 덕수궁, 인사동, 여의도, 남산 둘레길 등에서



미래에셋증권의 ESG 환경캠페인 ‘m. 플로깅’ 활동 모습.

사진제공 | 미래에셋증권

총 10회 진행한다. 지역에 상관없이 플로깅 활동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참여가 인

정된다.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선한 영향력 전파에도 힘을 보탤다.

참여 인원 수와 매칭해 기부금액을 산정한 뒤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피해지역 숲 복원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미 최현만 회장을 비롯해 7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 신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따뜻한 자본주의 실천을 위한 미래에셋증권의 사회공헌활동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문화와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울진과 삼척의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이번 ‘m. 플로깅’을 통해 적립된 기부금이 유실된 숲을 복원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하나銀, 개인형IRP 금융범죄 보상보험 지원

하나은행이 개인형IRP 연금 개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이버금융범죄에 취약한 고령층 연금 개시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무료 상품에 하나는 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다.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하나은행의 모바일뱅킹 하나원큐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리금융, 새 광고모델로 아이유 발탁

우리금융이 새 모델로 가수 겸 배우 아이유(사진)를 발탁했다. 회사 측은 “아이유를 한글로 해석하면, I(나)와 YOU(너)를 합한 ‘우리’라는 브랜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우리’라는 브랜드의 특별한 힘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음악과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의 탄탄한 커리어로 쌓은 전문성과 신뢰성은 물론, 장기간 선행으로 쌓은 선한 이미지가 우리금융이 추구하는 ESG 경영 실천과도 부합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2030 MZ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도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광고모델 추천 관련 임직원 설문조사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높은 추천을 받았다.

KB국민카드, 고객 패널 ‘톡톡 프렌즈’ 모집

KB국민카드가 고객 패널 ‘톡톡 프렌즈’를 모집한다. 고객 의견과 아이디어를 신상품 개발에 반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함이다. KB국민카드 고객 중 타사 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카드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패널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5월31일까지 지원서와 사전제재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패널로 선정된 고객은 신상품 개발을 위한 고객 관점의 아이디어 제안, KB국민카드 및 타사 상품 비교, 개선 제안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패널 활동 고객에게 소정의 활동비도 제공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26일(화) 음력: 3월 2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펴라.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명예를 얻는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그저 먹고 자고 깨기고 싶은 날이다.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 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뱀뱀을 만나 자문을 구하면 길을 찾을 것이다.	매사가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 하지만 그 풍선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금기야는 터지고 만다.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겠고 자금난에도 봉착할 수 있어 수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달날로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회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사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외국의 금전수익이 있을 수 있으나 독식할 수는 없다.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다.	승진 운이 있으나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바로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취업이 가능하다. 오늘은 닭이 닭을 만난 날이다. 자중지란을 조심해야 한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하는 일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라. 급한 마음을 달래려면 토끼띠생과 대화하라.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서류상의 문제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26일(화)
서울	90/0	인천	80/0
강릉	80/20	대전	100/20
광주	70/60	대구	90/60
창원	90/60	제주	10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1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